

고성능 카메라 위협하는 스마트폰… 1인치 이미지센서 ‘눈앞’

스마트폰 업계, 카메라로 성능 경쟁
삼성전자 S22 개발 올림푸스 협업
애플 카메라 커진 차기 아이폰 유출
화웨이 차기작 소니 이미지센서 탑재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가 카메라 성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고성능 카메라 시장까지 위협할 수준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지 센서 시장 강자인 삼성전자, 소니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할 갤럭시S22를 일본 카메라 업체인 올림푸스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트위터와 외신 등은 종전보다 2배 가까이 큰 1인치 수준 이미지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이미지도 후면 메인 카메라 렌즈 크기가 대폭 확대된 모습이다.

이미지센서 크기는 카메라 성능을 좌우한다.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 화각과 화질 등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다. 스마트폰 업계



레츠고디지털이 예상한 갤럭시 S22 울트라

/레츠고디지털

는 최근 들어 고성능 카메라 탑재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화웨이와 비보는 각각 명품 카메라 브랜드인 라이카와 칼자이스와 협업 중이며,

애플도 카메라 모듈 크기를 대폭 키운 차기 아이폰 목업이 유출되면서 카메라 성능 제고에 힘을 쏟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이 카메라 성능을 높이기 시작한 이유는 성능 상향 평준화를 극복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서라는 분석이다. 구동 성능이 대체로 비슷해지면서 카메라 성능을 강조하려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성능이 좋긴 하지만 센서 크기가 작다는 한계 때문에 여전히 카메라를 대체하기 어렵다”며 “더 큰 센서를 사용하면 일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더 크고 무거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모델별로 특징을 분명하게 구별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트라 모델에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고, 일반 모델에는 소형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픽셀 크기를



아이소셀 GN2를 탑재한 샤오미 미11 울트라

/샤오미

0.64μm로 더 줄인 아이소셀 JN1을 출시했다. 화소수가 5000만화소로 적은 편이라 보급형 모델에 장착될 전망이다. 플래그십 엔트리급 모델에서도 활용할만한 성능을 갖췄다.

갤럭시 S22에 장착할 1인치 크기 대형 이미지 센서도 올해 안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종전까지 크기가 가장 컸던 아이소셀은 샤오미 미11 울트라에 적용된 약 0.9인치인 아이소셀 GN2다.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는 갤럭시 S20 울트라에 탑재한 아이소셀 브라이브 HM1이 약 0.75인치로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시장 1위인 소니와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20%를 넘어섰고, 소니 점유율은 40% 초중반대로 주저앉고 있다.

소니도 고군분투 중이다. 올 초 1인치 이미지 센서인 IMX800을 공개한 상태다. 화웨이가 차기작인 P50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ToF 기술력을 앞세워 애플 등 핵심 고객사들과 관계도 이어가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올레드TV로 국내작가 예술작품 감상하세요”

국내 문화예술 업체 폴스타아트 협업
올레드 앱에 K-파인아트 테마 추가

LG전자가 전 세계 프리미엄 TV 이용자에게 국내 예술 작품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4일 LG 올레드 TV에 탑재된 올레드 갤러리 앱에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하는 K-파인아트 테마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문화·예술 콘텐츠 업체 폴스타아트와 협업을 통해서다.

LG전자는 이번 협업을 고객에게 TV를 통해 일상에서 예술적 가치를 제공함과 더불어 국내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K-파인아트 테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2017년형 올레드 TV부터 제공



LG전자가 폴스타아트와 손잡고 올레드 TV에 탑재된 올레드 갤러리 앱에 국내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추가했다.

/LG전자

된다. LG QNED MiniLED, 2018년 이후 LG 나노셀 TV 모델 등 일부 프리미엄 LCD TV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의 대상 TV 이용자는 유료 가입 없이 올레드 갤러리 앱이 자체 제

공하는 작품 80점을 감상할 수 있다. 폴스타아트 구독 서비스를 가입하면 현재 등록돼있는 국내 작가들의 미술 작품 4000여 점과 매월 업데이트되는 신규 작품을 추가로 즐길 수 있다.

LG전자는 올레드 TV를 통해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왜곡 없이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레드 TV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고 이를 자유재로 조절하는 섬세한 화질 표현이 장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현 LG전자 HE서비스기획운영실장은 “보다 많은 고객이 LG 올레드 TV의 혁신 기술과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 분야와 협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스타아트는 국내 현대미술 거장들과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국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제공하는 업체다. ▲‘물방울작가’로 불리며 한국 현대미술에 한 획을 그은 김창열 작가 ▲한국 표현주의 미술의 대가이자 근현대사 모습을 작품에 담아낸 권순철 작가 등 다양한 작품을 제공한다.

/한창대 수습기자 cd1@

코트라
‘온·오프 K뷰티 판촉전’ 개최

日 나고야서 홍보·판매·상담

KOTRA(코트라)가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뷰티’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코트라는 일본 나고야에서 1~12일 ‘온·오프라인 K뷰티 판촉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백화점 오프라인 홍보·판매 ▲온라인 매장 판촉 ▲화상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코트라는 주나고야 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 주관으로 개막식 개최, 행사 홍보, 한국문화 서포터즈를 통한 고객 유치 활동 등을 추진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수출 성공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아마존, 큐텐, 야후 등 일본의 대표 온라인 마켓과 함께 입점 판촉 행사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오프라인 판촉전은 일본 대형 백화점 그룹 ‘파르크’의 18개 점포 중 매출 1위인 나고야점에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코트라는 아직 일본에 선보이지 않은 한국 화장품을 20여개 판촉 매장에 진열해 일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할 예정이다.

20대 직장여성 A씨는 “코로나로 한국에 갈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일본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 화장품을 나고야에서 직접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판촉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정의영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본 중부지역은 산업재 중심으로 마케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한국 소비재 상품 수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HMM, 31번째 임시선박 출항… 국내기업 美 수출 지원

11일 타코마, 17일 LA 도착

HMM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항 임시선박 1척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31번째 임시선박이다.

부산신항 HPNT(HMM부산신항터미널)에서 출항한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호’는 국내 수출기업 등의 화물을 싣고 2일 부산을 출발해 이달 11일과 17일에 각각 미국 타코마와 LA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HMM 포워드호’는 총 3700TEU의 화물을 싣었으며, 국내 물량 중 60% 이상이 중소화주 물량으로 선적됐다.

HMM은 ‘포워드호’를 시작으로 이달에만 6척의 임시선박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7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입 물류 추가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HMM은 이달부터 미주항 임시선박을 최소 월 2회에서 월 4회로 증편한다. 또 미주항 서비스 외에도 국내 수출입 기업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러시아 등 선박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

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도 13일 미국 롱비치/타코마, 18일 보스토치니, 로테르담/함부르크, 25일 미국 타코마/LA, 30일 보스토치니 등 부산을 중심으로 매주 1척 이상 총 5척의 임시선박이 투입됐다.

HMM은 현재 선박 용선 시장에서는 컨테이너선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목적선 등을 비롯해 다른 노선에서 운영중인 선박까지 동원하여 임시선박으로 투입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수출입 기업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박 투입을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더욱 확대 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임시선박 투입은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중소화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